



10.5 농민대회

농민들 다시 거리로

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'350만 농민투쟁선 포대회'와 '이경해 열사 1주기 추모식'에서 밝힌 대로 지난 5일, 전 조직력을 동원해 전국 각 도별로 '우리 쌀 사수·농협개혁 촉구 농민대회'를 열었다.

이날 대회에서는 한농연 대 핵심 요구사항인 ▲쌀 관세화 유예 관철, 쌀 시장 추가 개방 반대, 수입쌀 식용판매 금지 ▲식량자급계획 법제화 관철, 추곡수매유지 ▲목표소득 지지제도 도입 및 직접지불제도 확대 시행 ▲농협법 연내 개정 및 총체적 개혁과제 추진 ▲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 등을 촉구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였다.

· 경기도연합회

“갈아엮고...태우고...들녘마다 거리마다 분노한 농심”

한 농연경기도연합회는 지난 5일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들녘에서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우리 쌀 사수·농협개혁 촉구’를 위한 경기도 농민대회’를 개최했다.

이날 염동식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은 대회를 통해 “농민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쌀 대책과 개방농정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식과 같은 벼를 갈아엮게 됐다”며 “쌀 개방철폐와 농협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피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또 김대욱 중앙연합회 부회장과 조봉희 도의원(농림수산위)도 정치연설에서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주권 확립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.



· 강원도연합회

“쌀 무너지면 밭작물도 망한다”

한 농연강원도연합회 회원 1000여명은 지난 5일 춘천시 공지천 일대에서 쌀 수입 반대 및 농협개혁을 위한 강원농민대회를 개최했다.

강원도농민대회에 참석한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“대회참석을 위해 가을들판을 지나오면서 풍요가 아닌 허탈감을 느꼈다”며 “농민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번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유에는 물론 추가적인 수입개방을 막아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농민들은 또 수확한 벼 가마를 태우며 정부의 쌀시장 개방에 강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.



대회 후 농민들은 농협강원지역본부까지 행진을 펼쳤으며, 본부장과 시·군 농민 대표 15명이 펼친 간담회에서 △시·군 지부 폐지 △시·군 금고 이익금 환원 △회원농협 금리조정위원회에 이사가 50%이상 참여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.

· 충청도연합회

“식량자급 목표치 법제화를”

한 농연충북도연합회 회원 700여명은 지난 5일 2시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‘우리 쌀 사수·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민투쟁 결의대회’를 개최했다.

이날 대회에서 농민들은 현재 진행되는 쌀 재협상은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금목표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 농민들은 또 ‘쌀 개방 반대’라는 문구 등이 적힌 쌀가마니를 태우며 정부의 쌀시장 개방에 강한 항의의 뜻을 표했다.

이날 송인범 한농연충북도연합회장은 “정부는 농민들의 쌀 사수 요구를 관철하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”며 “개방경제시대에 협동조합도 더 이상 농민의 위기를 방치하고 제 밥그릇만 지키다면 우리가 개혁에 직접 나서겠다”고 밝혔다. 집회를 마친 농민들은 충북도청 정문에 도착, 충북도가 쌀 개방 반대와 우리농업 사수에 적극 나서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았다.



· 충남도연합회

“철밥통 농협, 반드시 개혁을”

한 농연충남도연합회 회원 1000여명은 지난 5일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.

이날 지재돈 한농연충남도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“정부는 우리 농민,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쌀 수입개방 의도를 철회하고 철밥통 농협은 농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협동조합 개혁에 적극 나서라”고 촉구했다.

개회식을 끝내고 거리행진에 나선 농민들은 열린우리당 대전충남사무소와 농협충남지역본부를 향의 방문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및 10대 농

협개혁 과제사항을 전달했다. 또 지재돈 회장, 김지식 부회장, 유근준 연기군연합회장과 일선 회원 등 5명은 쌀 수입개방 반대 및 농협개혁 촉구 의지로 삭발을 강행하는 등 결연한 모습을 보여 농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.



· 전남도연합회

“쌀 개방 찬반 도민 투표 실시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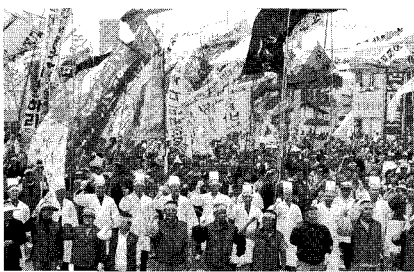
한 농연전남도연합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‘쌀 개방 반대 식량주권 수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’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‘쌀 개방 찬반 도민투표실시’를 촉구하는 대의원 대회를 가졌다.

이날 대회에서 이들은 △전남지사는 쌀 개방 찬반 도민투표실시 △전남도의회는 쌀 개방찬반 도민투표 실시 청구 △대통령은 쌀 개방 찬반 국민투표실시 △정부는 쌀 협상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 △대통령과 정부는 식량주권 선언을 하고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할 것 등을 강력 촉구하며, 관철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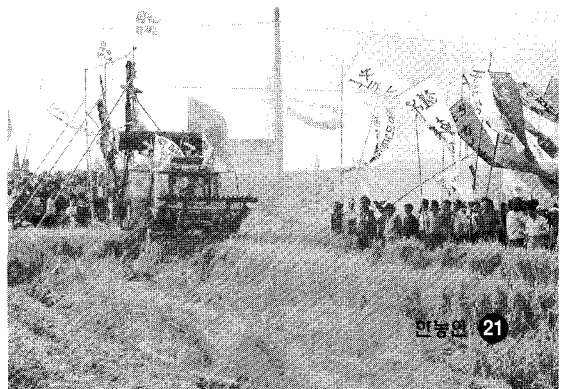
· 경북도연합회

“쌀은 식량안보 마지막 보루”



한 농연경북도연합회는 의성군 안계면 안계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회원 및 농업관련 인사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 경북농민대회’를 가졌다. 이날 박노옥 회장은 대회사에서 “쌀은 우리 민족의 혼이요 이 민족을 키우고 살려온 나라의 근간이다”며 “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쌀마저 아무런 대책 없이 시장에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”고 말했다.


대회식 후 참석한 농민들은 쌀 개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꽃상여를 지고 안계평야의 수확을 앞 둔 논에 집결, 미리 준비한 중국산 수입 냉동고추 및 수입 오렌지, 도내 각지에서 가져온 생 나락 50여 가마를 꽃상여와 함께 불을 지르고 2000여 평의 논을 갈아엎는 한편 수입 농산물과 쌀 포기 농정을 규탄하는 화형식을 가지기도 했다.



· 제주도연합회

“우리 쌀 지키고 감귤 발작물도 사수”

한 농연제주도연합회와 한여농제주도연합회는 지난 4일 ‘제주농업 회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’을 갖고 제주농정의 혁신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시병 회장은 “제주농민들이 강력한 투쟁의 깃발을 올린 것은 한국농업의 기초인 쌀 산업 보호는 물론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발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주농정의 개혁을 요구하기 위한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



우리 쌀 사수, 농협개혁 촉구

350만 농민대회

- 일시: 2004년 11월 19일(금) 오후 1시
- 장소: 서울 시내
- 주최: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,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,
우리쌀지키기 범국민협약운동본부